

3월 14일

떠날 수 없는 내 고향, '도호쿠'

—
이호상

* **지은이** | **이호상**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인문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학, 교통지리학, 일본지역연구, 지도학, GIS 등이며, 「에스닉 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도쿄 신오쿠보를 사례로」, 「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都市システムからみた九十九里地域における茂原市の中心性とその変容」, 「The networkability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flows 1992-2004」 등의 논문이 있다.



2011년 3월은 일본 열도를 충격과 탄식으로 얼룩지게 했던 잔인한 봄으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 쓰나미 물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폭발장면, 불바다로 변해 버린 도시와 농촌, 사람과 함께 차량, 선박, 주택 등이 한꺼번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영화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바라봐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을 현지에서 경험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기억들이며, 그 시간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이재민들은 지금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대재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재앙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본대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고 칭하는 것이 이번 재해의 본질을 좀더 정확히 나타내어 주는 말이라고 하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도호쿠 지방 앞 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서 연안부 지역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특히 쓰나미에 의해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복합적인 형태의 대재앙으로 발전되면서 피해양상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일본대진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진과는 달리, 동일본대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번 재해를 단순히 ‘대지진’이라고 표현하기

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일본사회를 ‘전후’(戰後)라고 규정한 것에 빗대어 일부에서는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일본사회를 ‘재후’(災後)라고 표현할 만큼 대진재가 일본사회에 던진 충격과는 ‘리히터 규모 9.0’ 그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일본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일본의 각종 사회문제가 동일본대진재를 계기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격차의 확대와 고용 불안, 경제리스크의 증가, 정부의 재정압박 등 대진재 이전부터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재후’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러한 당면과제들이 재해복구 과정에서 장애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재해지역만의 국지적인 문제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 전후 일본사회를 평화와 경제성장으로 이끌었던 패러다임처럼 ‘재후 일본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동일본대진재와 사회변동’ 연구팀은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도호쿠 지방 피해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연구팀이 일주일 동안 재해현장에서 바라본 도호쿠 지방의 모습과 피해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센다이 지역경제의 변화

센다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집결한 연구진 표정에서 다소 긴장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실 본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호쿠 지방의 재해지역을 연구진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



센다이공항 주변의 쓰나미로 파괴된 농경지

용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누출에 관한 언론보도를 연일 접해 왔던 터라 현지조사의 안전문제에 대해 연구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지에서의 식사문제부터가 걸림돌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현지의 많은 식자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연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피재지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폭설이 예보된 현지의 날씨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 현지조사였기에 걱정과 긴장감이 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부담을 안고 출발한 지 2시간여, 센다이 상공에서 내려다본 해안지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해안가에 방풍림으로 구성되어 있던 나무들은 육지쪽으로 완전히 누워 있었고, 주거지나 농지로 이용되었을 평지는 갯벌처럼 변하였으며, 해안가에는 온전한 건물이나 나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TV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던 바로 그 지역이었으며, 영화에서나 보던 참혹한 폐허의 현상이었다. 그런 곳에서 말끔하게 정비된 센다이공항의 모습은 경이롭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센다이공항에서 센다이역으로 이동하는 전철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주민과

쓰나미가 덮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동일본을 강타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자연의 대재앙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던 그 시간, 정작 현지 주민들은 정전으로 인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는데 복구가 늦어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으며, 바로 옆 마을까지 쓰나미로 초토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날에야 알았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엄청난 재앙이 덮친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었으나, TV화면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쓰나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처럼 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에서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못한 재난정보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전과 함께 모든 지역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면서 유사시에 재난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대재앙의 경우 어느 정도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대혼란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센다이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하던 필자는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해안지역에서 보았던 재해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중심시가지의 변화한 모습과 거리를 가득 메운 차량과 인파를 보며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센다이 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도호쿠 지방의 최상위 중심지인 센다이 시는 대진재 이후 이른바 ‘진재특수’ 또는 ‘부흥특수’에 의해서 중심시가지가 활성화되고, 대진재 이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안지역의 이재민들과 후쿠시마 현의 일부 주민들이 센다이 시 일대로 피난을 오면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센다이 시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진재 이후 도호쿠 지방의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한 일부 기업들이 센다이 시만큼은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의 시설을 입지시키거나 투자를 확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도호쿠 지방에서 센다이 경제권의 상징성·중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도호쿠 지방의 재건과정에서 센다이를 지역거점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는데, 센다이에 새롭게 입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진재 이전에도 센다이 경제권이 도쿄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진재로 인해 지역의 토착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그 빈자리를 타지역의 대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게센누마의 상처와 희망

센다이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3일차가 되는 날에는 미야기 현의 최북단에 위치한 게센누마(気仙沼) 시로 이동하였다. 게센누마는 지진 직후 화재가 발생하여 3일 동안이나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총 인구 7만 4천여 명 중에서 1천 4백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2만 6천여 세대 중에서 9천 5백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폭설로 인해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었음에도 참혹한 현장은 연구진의 말문을 단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허허벌판으로 변해 버린 시가지와 그나마 남아있는 인공구조물 곳곳에는 당시의 화재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쓰나미와 함께 육지로 떠밀려 온 선박들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되어 버린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각종 재해쓰레기가 곳곳에 산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공터는 모두 재해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엄



게센누마 중심시까지가지까지 쓰나미에 떠밀려온 대형선박

청난 양의 재해쓰레기를 한꺼번에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여기저기에 방치된 자동차나 선박 등도 주인의 동의 하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혹자는 이를 보고 폐기 처리해야 할 물건임에도 개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일본인들의 업무방식을 높이 평가할 것이며, 다른 이는 역시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융통성 없이 처리하는 방식을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년 동안 전체 쓰레기의 10%도 처리하지 못하고,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과 이재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대재앙이 남기고 간 큰 상처는 좀처럼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농지는 해수의 염분으로 인해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바닷물에 잠겼던 것들은 모두 말라죽어가고 있었다. 시가지에서도 아직까지 바닷물이 도처에 고여 있고,

염분으로 인해 다시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려우며, 지반침하와 지반 액상화가 진행되면서 복구에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또다시 쓰나미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후 게센누마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후나토(大船渡)와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를 조사하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기타카미고지(北上高地)에 위치한 일본의 전형적인 항구도시이며, 수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이다. 그런데 쓰나미로 인해 어선,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어시장 등 수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수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게센누마의 경우 3,500여 척의 어선들 중에서 약 3천 척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으며, 모든 어항의 시설이 파괴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등 괴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방의 영세한 업체들이 재기해서 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지역산업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을 복구하고 산업시설을 재 정비하기에는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수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산업도 변변치 못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쓰나미의 피해는 1차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역의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된 항구도시들은 상업시설들도 항구 주변에 발달되기 마련이다. 게센누마를 비롯하여 도호쿠 지방의 연안 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들도 쓰나미에 의해서 중심 상업시설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계센누마의 가설상가

입었다. 쓰나미로 상가를 잃어버린 상인들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여 가설상가를 세우거나, 창고를 시장으로 개조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권은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떠나거나 소비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점심시간에 찾아간 가설상가 주변에는 외지에서 찾아온 방송국 촬영팀과 자원봉사자 몇 명을 제외하곤 지역주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식당에도 대부분 빈 좌석이였다. 이렇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상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

반복되는 쓰나미의 역사

아침 일찍 계센누마를 떠나 이와테 현 리쿠젠타카타 시로 이동하였다. 차창 밖으로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건물 위로 올라간



쓰나미로 철골만 남은 수산물가공공장

자동차와 어선들, 뼈대만 남아 있는 건물들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주택들, 심지어 통째로 바다로 떠내려간 주택, 끊어진 다리와 철도, 모래성처럼 무너진 제방과 방파제, 이 모든 것들이 쓰나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지난 피해지역의 모습이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라곤 복구 작업에 동원된 수천대의 중장비와 트럭이 대부분이었다.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앗아간 자연재해의 가공할 만한 위력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먹먹해져 갔다.

피해지역을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이번에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은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들이 대부분 신사 또는 사찰이었고, 일반 주택은 오래된 가옥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은 1896년 산리쿠(三陸) 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의 해안은 일본을 대표하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작은 진동에도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때문에



쓰나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자동차

그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지역 토박이 사이에서는 고지대에 위치한 신사나 고택 아래로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전해져 내려왔었다. 그러나 10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도 지역개발과 경제논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번 대진재는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을 자연이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함이 아닐까. 과거의 교훈을 잊은 채 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며 조성했던 시가지들이 이번 쓰나미에 모두 사라지고 만 것이다.

고지대의 신사와 고택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침수지역을 다시 개발해서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같은 지역에서 쓰나미에 의해서 이미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역을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항구 주변의 구도심을 재개발한다면, 우리 후손들도 어느 순간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나 의식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이 지역의 이재민들에 대한 '피난'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이

주'정책을 고민해야 된다. 현재 기설주택이나 인근 지역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결국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쓰나미의 위협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집단이주를 고려해야 된다. 또한 이재민들의 피난은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주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현이나 국가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복구·부흥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쓰나미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고지대와 내륙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돌아가야 할 후루사토(故郷), 후쿠시마

현지조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후쿠시마 시를 방문하였는데, 일요일 저녁 후쿠시마역은 참으로 한산하였다. 신칸센으로 한 정거장 차이인 센다이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였으며, 역사 밖으로 나가자 소독약 같은 냄새가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는 듯했다. 중심상가 주변에도 행인들이 거의 보이질 않았고, 대부분 만실이었던 센다이의 호텔들과는 달리 후쿠시마의 호텔들은 불이 켜져 있는 객실이 몇 개 보이질 않았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공포 때문인지 도시 분위기가 웬지 스산하고 긴장감마저 느껴졌다. 같은 도호쿠 지방의 재해지역임에도 지금까지 방문하였던 미야기 현이나 이와테 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평온한 지방 도시처럼 보이지만, 이 곳의 주민들은 다른 재해지역의 이재민들만큼이나 고통과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미야기현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후쿠시마 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들을 여러번 볼 수 있었다. 이방인의 눈에는

후쿠시마현이나 미야기현이나 위험해 보이기에는 마찬가지인데, 미야기 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미야기 현은 후쿠시마 현과 달리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 속내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작 후쿠시마 현의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청을 방문해서 만난 여러 담당자들의 표정과 현청의 무거운 분위기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공무원 신분이기에 자신들은 후쿠시마를 떠나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경우가 많다는 설명에 더 이상 깊은 질문을 하기도 어려웠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후쿠시마 현 방사능 오염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촌장과 주민들이 피난생활을 접고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두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이들은 왜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을과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가? 피난생활의 고단함, 고향에 대한 애착, 정부에 대한 불신, 희망이 없는 여생의 마무리 등 과연 이들이 스스로 사지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둘째,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계속 '피난'을 시키고 있는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구소련 정부는 발전소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 2000명을 모두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단지 피난을 시키고 있을 뿐, 사고발생 1년이 넘도록 이주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인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기 때문인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미야기 현과 이와테 현의 쓰나미 침수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쓰나미를 겪으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또다시 그 지역을 부흥시키겠다는 사례나,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방사능이 대량 누출되었음에도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례 모두 공통적인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확실한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일본인들이 유독 고향이나 자신의 마을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방인이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지역은 일본인들에게 고향 '후루사토'는 어떤 존재이기에 떠날 수 없는 것일까. 재해지역의 복구과정에서 다른 지역현안과 더불어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한다.